

## 성북구 전등사 “주민 사랑방 역할하겠다”

지역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전등사(주지 동명스님)가 문호를 활짝 열어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방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동명스님은 지난 15일 전등사에서 열린 지역주민모임에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등사 문을 열겠다”면서 “주민과 전등사 대중이 뽕뽕 모여 재개발을 막아 아름다움을 간직한 동네를 지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주민모임에 참석한 도법스님(조계종결사추진본부장)은 “직접 와서 재개발 예정지역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개발보다는 잘 보존해야 할 지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기계화되고 도시화된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바로 이 동네”라고 강조했다.

전등사 주지 동명스님과 조계종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의 이 같은 입장에 주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박사한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그

15일, 지역주민 모임에서 개방 뜻 밝혀

지역재개발 반대 … 도법스님 “돕겠다”

동안 조계종 총무원과 전등사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 늘 감사한 마음이었다”면서 “전등사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제공해준다고 하니 더욱 힘이 난다”고 반겼다.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40%에 이르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북제3주택재개발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어왔다. 주민들은 “무조건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



서 “하지만 정비의 필요성이 없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들까지 일괄적으로 헐고 개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본지 2700호, 2707호 참조>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역)바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돕겠다”고 다짐했다. 전등사 주지 동명스님 또한 “전등사가 문을 활짝 열어 주민들을 위해 거듭 태어나겠다는 마음”이라며 “우리 앞에 닥친 현안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역주민 모임에는 오한숙희(여성학자)씨가 참석해 지역재개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연을 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전등사 주지 동명스님(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5일 전등사 대웅전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동네지킴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포교원장 혜총스님

## ‘아름다운 회향’

퇴임 앞두고 종단사업에 3000만원 ‘보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 및 승려노후복지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퇴임을 앞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이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3000만원을 쾌척했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불사금 1000만원 등 종단발전기금 3000

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포교원장스님이 전달한 3000만원은 군법당 건립기금 1000만원을 비롯해 승려노후복지기금 1000만원, 승려교육진흥기금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포교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단체에 알게 모르게 보시하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시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감사인사를 건넸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자성과 선행 결사를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에서 퇴임에 앞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포교원장 소임을 놓고 나서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

육원장 현응스님은 “포교원장 스님께서 헌신적으로 포교하셨던 것처럼 스님께서 보시한 승려교육진흥기금을 통해 향후 포교에 전념할 훌륭한 스님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동국대 앞 선교 제지하는 스님 ‘고소’

## 도님은 선교…이래도 되나?

종립 동국대 앞에서 무리를 이뤄 선교 활동을 벌인 사람들이 이를 제지한 스님을 고소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전도를 목적으로 매일 학교를 찾아 유인물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9월21일 발생했다. 동국대 교법사 제정스님(조계종중앙종회의원)은 지난 15일 “팁을 짜 번갈아 가며 학교에 들어올 때마다 주의를 쫓지만 이를 번번이 무시했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유인물을 거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날은 20~30대로 추정되는 여성 네 명이 학교를 찾아왔다. 몇 분에 걸친 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온 모습

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는 스님은 자료집부터 거뒀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가 돼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스님은 “처음에는 4명 뿐이었지만 목사를 포함해 10여 명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더욱 불거진 것은 다음 날, 교인들이 학교 정각원에 몰려와 유인물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스님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들어와 폭언까지 일삼아 도저히 돌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스님을 고소한 것은 약 한 달 뒤인 지난 13일, 중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민원실을 방문해 ‘업무 방해’로 스님을 고소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나친 ‘선교방식’을 문제점으로 들었

다. 정영수 조계종 법무전문위원은 “대화와 타협에 앞장서야 하는 종교인으로서 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은 사회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정석원 변호사는 “‘선교’가 업무로 성립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지속적으로 종립학교에서 활동을 벌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은 “대형교회 앞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염불하며 목탁을 두드리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며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나서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까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해당 교회 측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18일 현재)

홍다영 기자

아름다운동행, 새 이사진 구성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제2기 이사진이 구성됐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제2기 이사진을 공식 출범했다.

이번 2기 이사진에는 이사장 자승스님, 상임이사 해경스님(사회부장),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 도선사 주지 해자스님,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봉은사 주지 진하스님, 김희옥 동국대총장, 전 검찰총장 김중빈 변호사로 구성됐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이사진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대표적인 모금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며 “앞으로 저소득 가정, 국제구호, 대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해인사대장경, 남해서 판각”

박상국씨, 정각원 강연서 주장

동국대 정각원(원장 범타스님)이 초조대장경 간행 천년을 기념하는 특별법회를 마련했다. 정각원은 지난 13일 박상국 한국문화연구원장을 초청, ‘고려대장경 천년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서지학자인 박 원장은 “해인사 대장경판은 선원사에 대장도감에 설치돼 1236년에서 1251년까지 판각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판각장소는 경남 함해”라며 “판각기간도 현종 때인 1014년 시작해 7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초조대장경 판각은 1011년부터 10년, 문종 때 속장경은 1065년부터 5년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해인사에 소장돼 있는 고려대장경과 관련해 “수기대사가 중심이 돼 초조본, 송본 등과 내용대교를 거쳐 1237년부터 1248년까지 12년간 판각됐고 모두 남해에서 새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려 현종 때 초조대장경을 조성하고 문종 때 속장경을 판각하면서 터득한 지혜가 대각국사 의천스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이고, 수기대사가 이어 받아 고려대장경판을 판각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고려대장경판에 담긴 정신을 이어 학자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한 대장경으로 만들고, 고려대장경판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어현경 기자



‘선묵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지난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 대법회 및 영산재를 봉행했다.

## 지구 119바퀴 돌며 ‘신행 새바람’

108산사순례회 창립 5주년 기념법회 성료

전국 사찰을 돌며 대규모 신행 활동에 나서고 있는 ‘선묵 해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올해로 순례 5주년을 맞았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지난 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조계종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 신심, 자비로운 나눔, 함께하는 사회’를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 대법회 및 영산재를 봉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를 비롯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여야 당대표들이 참석해 불심(佛心)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지난 5년간 한국불교의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으며 범불교적인 대사회 실천운동을 펼쳤다”면서 “이는 순례에 동참한 불자들의 신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종착점을 향하고 있는 대자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더욱 정진하자”고 독려했다.

지난 2006년 영축총림 통도사를 시작으로 지난 6월부터 8일까지 진행된 풍기 회방사 순례까지 5년 동안 61곳의 사찰을 순례했다. 그동안 참여한 인원만 30만 명, 순례한 거리만 4만 km가 넘는다. 이는 지구는 119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다. 또한 동원된 버스만 5000여 대,

군장병을 위해 보시한 초코파이가 253만 개, 기와불사 5만 여 장, 보시한 쌀이 2400여 가마 등 가는 곳마다 진기록을 세웠다. 특히 농어촌 직거래 장터와 농촌사랑봉사단, 군장병 사랑 초코파이 보시, 환경사랑 실천, 108장학금, 108여행상, 다문화가정인연맺기, 108약사 여행보시상, 108가지 좋은 일하기 등을 펼치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종단 5대 결사에 앞장서 동참함은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법행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모든 순례가 원만히 회향돼 불교의 위상을 제고시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정철 기자

## “불교발전 언론인을 찾아라”

경주동대, 불교장학금 수여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대상 1000만원…11월5일 마감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는 불교언론문화상 후보작과 후보자를 오는 11월5일까지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공모 부분은 불교언론인상과 TV 라디오 신문 등 3분야에서 언론문화 창달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작품과 인물이며, 특별상 등에서 기타 부문의 공모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불교언론문화상은 각 분야 수상금을 대폭 인상에 대상에 1000만원, 불교언론인상과 각 3부문의 최우수상에 각각 500만원, 우수상과 특별상에 각각 200만원 등 총 수상금이 3800만원에 이른다.

공모자격에서 후보자의 종교에 제한을 두지 않은 개방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활동했거나 한국적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 것이면 응모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대상에서 TV 라디오 신문 3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비롯, 불교언론인상은 불교언론인 중에서 선정하며, TV 라디오부문은 프로그램, 신문은 기획기사 등이 시상 대상이다. 이어 특별상의 경우 방송 신문 애니메이션 인터넷(각 사찰 홈페이지

지와 단체 홈페이지 및 카페 블로그 등 포함) 등 미디어의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 매년 시상되고 있는 불교언론문화상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분야에서 뛰어난 불교 관련 작품과 언론계에 훌륭한 등불이 된 언론인을 선정해 수상자를 결정해왔다. 이번 공모 출품작들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제작방송된 작품들이 대상이다.

응모방법은 언론 및 불교관련 분야 전문인사 추천서를 겸비해 작품 개요서와 함께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 또는 사단법인 보리에 접수하면 된다. 언론인상의 경우 공적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TV 및 라디오 부문은 방영사명이 들어간 DVD 또는 CD 각2부, 신문에서 연재물일 경우 전면기사 사본 2부 및

그 외 기사 PDF CD 2부 제출 등의 추가 조항이 있다. 특별상 부문은 응모분야가 자유로운 만큼 각 부문별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며, 인터넷 부문의 경우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단체 대표, 개설일, 운영자명, 일일 평균 이용자, 주요 콘텐츠 소개 등의 부가사항이 있다. 문의는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02-745-5811, 5813).

김중찬 기자 kimj00@ibulgyo.com

한장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사
 구독신청 (02)730-4488 광고문의 (02)730-4490

불상사, 복지기금 마련 전시회
 보문종 불상사가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70여 작품 전시회를 연다.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4층에서 오는 11월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그림 서예 조각 조소 백자기 등 70여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중찬 기자 kimj00@ibulgyo.com